

광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288억 투입

급식비 인상·차액 보육료 지원 확대…영유아 지원 강화
시. 시비 232억 등 들여 자체 보육사업 20개 과제 추진

광주시가 어린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비와 구비를 합쳐 총 288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급식비 단기를 인상해 영유아의 먹거리 질을 높이고, 외국인 아동과 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시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시는 계획 추진을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총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288억7900만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은 시비 232억2500만원과 구비 56억5400만원으로 분담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유아 급식비 지원 단가

의 현실화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비(급식재료 안심구매)' 지원 단기를 기존 760원에서 930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위해 총 50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안심 구매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로, 하루 1인당 93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지원 일수에서 제외된다.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졌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전원 인건비 지원액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관련 예산 1억3200만원 전액 시비로 총당

된다. 아울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도 개소당 월 2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원해 특수보육 현장의 운영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는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시는 기존에 지원하던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외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를 신설했다.

이는 공공형 어린이집 95개소를 대상으로 유아 반(3~5세) 1개 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존 운영비 지원 사업(36억7400만원)과 환경개선비(6500만원)를 포함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38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도 지속된다.

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45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월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 보육 교직원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는 명절수당

으로 8억6700만원을 배정했다.

조리사 인건비와 대체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형·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23억3000만원을 투입해 개소당 월 45만원을 지원한다. 조리사가 연가나 병가를 낼 경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인력 인건비는 2026년도 광주시 생활임금 인상분(시급 1만3303원)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조리사는 일 8만4820원, 조리원은 7만15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를 위해 '차액 보육료' 34억4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 지원 보육료와 광주시 수납 한도액 간의 차이를 보전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에게도 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10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반년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안심 보육비'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비 3억6900만원, 보육교사 안전교육비 8000만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33억5600만원), 영유아 발달 컨설팅(1억2300만원), 냉난방비 지원(4억74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2억원) 등 보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2026년도 자체 보육사업 계획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이 낳고 기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보육 품질 향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세계 무대 'AI 도시 광주' 홍보 'CES 2026'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엑스포 내 '광주공동관'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시원 엘비에스테크 대표를 비롯한 참가 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AI 도시 광주'의 혁신 기술을 세계 무대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시진핑 선물' 판다 입식 준비

강기정 시장, 우치동물원서 현장 점검 나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주에 판다 추가 도입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우치동물원을 찾아 자이언트 판다 입식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밤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강기정 시장은 국가 거점동물원인 북구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판다 사육 시설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 2곳을 직접 둘러보고, 진료 시스템과 전문 인력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 추가 입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지역 내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아직 판다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추진될 경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 환경과 동물복지 시스템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우치동물원이 보유한 '국가 거점동물원'으로서의 위상과 진료 역량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전국에 단 두 곳뿐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는 물론 제주, 여수, 해남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타지역 동물들까지 진료하며 공공 의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판다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곰과 동물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도 강점이다. 우치동물원은 옹당 채취용 농가에서 구조된 반달기슴곰 4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공 포总体规划과 노령 개체 치료, 대학과 연계한 종 보전 연구 등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 앵무새 티타늄 인공 부리 이식 수술, 국내 최초 붉은꼬리보아벌 중성화 수술 등을 성공시키며 고난도 수술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동물복지포럼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을 받았으며, 2년 연속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로부터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청 '희망장난감도서관' 이용자 급증

연회비 3만원·최장 3주 대여

광주시청 1층에 자리잡은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특별히 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도서관의 신규 가입자 수는 549명, 총 이용 건수는 610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378명, 2024년 463명에 이어 3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75%인 410명이 처음 이용하는 부모들로 나타나, 입소문을 타고 신규 이용층 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이곳은 광주시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거점이다. 광주시에 주

소를 두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 3만 원만 내면 최장 3주까지 원하는 장난감을 빌릴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회비가 전액 면제된다.

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 총 888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신상 장난감 153점을 새로 들여왔다. 성장 속도가 빨라 금세 삶을内外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번 고가의 장난감을 사주기 부담스러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위생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상주하며 반납된 장난감을 꼼꼼히 소독하고 관리해 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농기센터 '초보 농부' 현장실습생 모집

23일까지…선도 농가 매칭 등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베�테랑 농가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보 농부들이 시행착오 없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2026년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 및 예비 농업인을 지역 내 실력 있는 선도 농가와 1대 1로 연결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멘티가 된 교육생은 멘

토인 선도 농가의 지도 아래 실제 농업 현장에서 각 목별 재배 기술부터 농장 운영, 경영 관리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알짜배기'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교육 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로, 책상 위 이론 교육이 아닌 현장 밀착형 실습을 통해 영농 초기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규 농업 인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예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마감 기한인 2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062-613-5275)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